



## 우리 문화유산 60여점 '펜화'로



새벽녘, 종이 스치는 철필소리는 사경 소리 같아

김영택의 펜화기행

김영택 지음  
지식의 숲 펴냄 | 1만5000원

조급증에 걸려버린 요즘, 보름동안 50만 번의 선을 그으며 한 장의 펜화를 완성시키는 이가 있다. 펜화가 김영택 화백이다. 김 화백은 국내 미술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르인 펜화를 개척해 지난 15년간 열정을 쏟아 왔다. 그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탄생한 펜화는 우리 전통건축물이 가진 고유한 품격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펜화의 소재를 찾아 전국을 돌며 만난 자연과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글들 또한 그림을 보는 재미를 한결 북돋운다.

김 화백은 그동안 정성들여 화관에 올렸던 펜화 60여 점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다. 건물의 기와와 기둥과 석축, 나무줄기와 인사귀 모양, 그리고 빛의 각도에 따른 명암과 음영까지 섬세하게 잡아낸 그의 작품들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그러나 그런 결과물을 얻기까지 작가가 들인 땀방울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선다.

김영택 화백은 “수 만장의 벽화를 한 장 한 장 스케치해야 할 때면 펜을 들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 지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막막함 때문에 때로는 하루 종일 그렸는데도 흰 종이의 십분의 일을 채우지 못할 때”도 있다고 작업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어 김 화백은 “새벽녘 잠이 깬 무아의 상태에서 종이 를 스치며 나는 철필의 소리는 마치 불경을 사경하는 소리처럼 경건하게 들린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문화재를 화제(畫題)의 대상으로 이어 우리 문화재에 대한 다뤄는 애정을 넘어 다시 문화재를 보는 상당한 안목까지 승화시킨 작가의 집념은 책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복원한 봉화 청암정의 팔작지붕이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김 화백은 마음속으로 무척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김 화백은 최근 일반에 개방된 북악산 속정문 성벽에 고증과 어긋나는 가로 홍안(銃眼)이 들어선 것을 개탄하며 그림에서나마 바로잡겠다는 의욕을 보여줬다. 문화재를 대하는 그의 애정과 인목이 드러난 대목이다.

통도사 대광명전을 가리고 선 목련 두 그루를 그림에서 빼



문경 불암사 일주문 전경

버리거나 총북 영동 강선대의 일본식 석축과 쇠 난간을 우리식 석축과 목조 난간으로 고쳐 그린 것, 그리고 관람객들의 발길에 밟아서 흐릿해진 경복궁 근정문 계단 담도의 봉황 문양을 선명하게 ‘복원’한 것 역시 못 말할 애정의 소산이다. 그림의 주인공 격인 건축문화재는 물론 주변의 풀 한 포기와 돌 한 조각도 놓치지 않고 살뜰히 챙겨 넣은 그림들은 작가의 문화재 사랑이 이 땅과 자연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게 해준다.

이 책은 담양 소쇄원, 고창 선운사, 영선 만불사 등 우리 땅의 아름다운 유적들을 ‘산, 물, 흙, 사람, 하늘’이라는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눠 엮었다. 그림 속 문화유산의 유래와 의미를 감성적인 문제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가히 새로운 형식의 문화유산 답사기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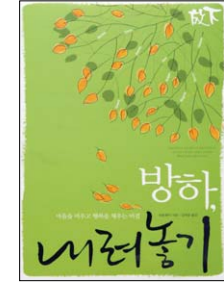
‘펜화’라는 독특한 장르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알 수 있는 지식 기행문의 형식을 갖춰 기존 여행 에세이와는 차별화시켰다. 특히 문화유산의 실제 사진과 정교한 펜화의 작품을 비교할 수 있으며 펜화의 세심함에 작품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정교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문화를 개척한 저자의 삶도 글 곳곳에 묻어나 색채색록 감동을 더해준다.

김주일 기자

## ‘내려놓기’ 활용하는 방법 소개

방하, 내려놓기

위동회이 지음 | 김락준 옮김  
베이지북스 펴냄 | 9,500원



“옛날 중국에 거동이 매우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 몸에 희한한 물건을 잔뜩 매달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는 길을 가다 부러진 나뭇가지건 조각난 기

와장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주워서 몸에 매달았다.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무엇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시나요? 쓸모없는 것들은 모두 갖다버리구려.’ 그는 ‘뭐가 쓸모 있고, 뭐가 쓸모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라며 결국 물건들을 내려놓지 않았다.”

비록 중국의 옛 이야기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갖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매달다. 새 것을 채우기 위해선 무엇이 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쓸데 없는 물건들을 잔뜩 짊어지 채 바쁘게 살아가며 그 무게에 짓눌려 지치고 상처받는다.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지도 않는다.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내려놓는 것이다. 문제는 마음 채워 이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내려놓기와 마음 비우기를 실천하는 데 불교의 선(禪)이 유용하며 이를 현실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 책이 나왔다. 중국의 육조단경(六祖壇經) 연구가이자 심리상담사인 위동회(于東暉)의 <방하, 내려놓기>다.

책에는 중국 선의 진수인 육조단경에 근거, 마음을 비우고 행복을 채우는 비결을 ‘간파(看破)’, ‘방하(放下)’, ‘자재(自在)’의 3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고대 중국 철학의 진수인 <단경>을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서 이제의 마음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김주일 기자

## 왕유가 남긴 시 308편 376수 국내 최초로 망라

왕유 시전집 왕유 지음/박삼수 역주 | 한림사 펴냄 | 3만8000원



새벽 독경에 숙속은 아직 밝지도 않고 반중 참선에 산속은 더욱 적막한데 불가의 도심(道心)이 목동에게까지 미치니 세속의 일일랑 나무꾼에게 물어본다. (朝梵林未曙 夜禪山更寂 道心及牧童 世世問樵客)

중국 당나라 시대의 시불(詩佛)로 일컬어지는 왕유(王維)의 ‘남전산 석문정사’란 시 중간 대목이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왕유의 시들이 당시(唐詩) 모음집 등에 신발적으로 소개돼 왔다. 울산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박삼수 교수가 역주해 묶은 <왕유 시전집>은 왕유가 남긴 308편 376수를 모두 담았다. 국내 최초의 작업이다. 이미 신라시대부터 당시(唐詩)가 전해져 읽혔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역사적인 저술이다. 시 전편을 제재와 내용에 따라 자연시 교유시 정치시 이별시 여성시 등으로 분

류했고 풍부한 주석과 관련 고사와 논쟁 등을 첨언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박 교수는 20여 년 간 왕유시 연구 해 오면서 세계적인 왕유시연구의 권위자인 중국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천 티에민(陳鐵民) 교수와 깊은 교분을 맺으며 연구에 힘을 받았다. 천 티에민 교수는 <왕유 시전집>의 추천사에서 “왕유의 시에도 누구 못지않은 천의 무봉(天衣無縫)의 명구가 가득한데, 이를 제대로 번역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며 “나는 이 최초의 완역 상주본인 <왕유 시전집>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면서 가까이 독자 여러분께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임연태 기자

## 역대 선지식인들이 남긴 글 모아

역주 치문경훈 일류 우천 역주 | 정우서적 펴냄 | 3만원



<치문경훈>은 우리나라 전통강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교재다. 중국의 역대 선지식들이 남긴 글들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고려 말 태고 보우 선사(普愚)가 들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수행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경책(警策)에서 면학을 분발시키는 글, 선사들의 편지글, 각종 기록문, 발원문 등 모두 13가지 테마별로 편찬된 수행의 기본 텍스트다.

처음 편집한 영종 스님은 서문에서 “제목은 ‘치문경훈’이라 하였으나 폭넓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보고 깨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 태고 보우 스님은 서문에서 “나라의 사람들이 보고 들어 수승한 인연을 맺어서 필경에는 위없는 정각을 이루게 할 것이니 이것이 ‘경훈’의 뜻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일류 스님과 우천 이성은(正雲)서적 대표씨는 <치문경훈>의 역주본을 내며 100여권의 참고자료를 망라했다. 오목의 염려를 최대한 줄이면서 기존 유통본들의 오역을 바로잡기도 했다. 또 ‘호법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생애를 추적해 밝혀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임연태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황진	뫼터의 마을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상을 사랑합니다	황호	마음의 숲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5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기록집	청화	상상연
8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9	하루 108배 마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다이어
10	까르마, 나를 생각하세요	미셀 미턴	지영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해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되시길 합장 발원합니다. 동안겨 수행 정진하시는 대덕스님 및 재가불자님께 **고무신코 만행화**를 소개합니다.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털신 | 사계절단화

최고의 선물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가벼운 무게 | 지압식 깔창

영하 10도에서도 발이 시렵지 않고 초코세사 방수원단 콜크중창, 보아털 10mm 지압식 실리론 동 깔창, 미끄럼 방지 눈슬리 깔창, 수작업으로만 고집하여 만들었으며 이미 대덕스님, 불자님들이 신어보시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절에 있어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로 인한 몸건강을 생각하며 우리고유의 **설 명절, 동안겨 해제를 맞아 만행화에 만행화신발**을 보시, 선물로써 좋은 생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무자년 한해도 건강 하세요. 대표 박 복산 합장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인) \*법보시 상담 환영
- 본사: 서울 중로구 광명동 143번지 402호(종각역 2번출구 100m거리)



통합검색 | 만행화 |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광주: 불교서원 062926-3056 / 화신승복 062928-2870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성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뫼터북교점 054655-2525

## 신비의 주역점서 『초씨역림』, 『초씨역림 384』 전2권 완간

매주 월요일 7시  
'대동역학교육원'  
031-447-3888

'전2권' 구매하신 분은 '대동역학교육원' 강의료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정가 25,000원



정가 60,000원

'전2권' 구매하신 분은 '전통과학아카데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  
전통과학아카데미  
02-929-4646

『초씨역림 384』는 원전 『초씨역림』의 폐사 중에서 삼 변법으로 점쳤을 때 나오는 64괘 384호를 수록하고 점사를 일일이 상세하게 분류해 놓았다.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초씨역림 384』와 『초씨역림』을 같이 놓고 점쳐 보면 세상만사吉凶을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초씨역림』은 주역 64괘를 다시 통변 64괘 하여 4,096 괘로 완전한 통변을 다한 유일한 비급이다. 『초씨역림』은 폐사 전체를 해독하지 않더라도 끝 구문만을 보면吉凶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초보자도 쉽게吉凶을 점칠 수 있다. 『초씨역림』은 대정각예법에 의하여 평생 시주를 연년 세세로 계산하여 일생의吉凶회복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초씨역림』에는 명리학이나 주역, 여타 학문으로 나오지 않는吉凶이 정확하게 나와 제인들을 감탄하게 만든다.

### '전국 유명 서점 절찬리에 판매중!'

출판사로 주문하시면 '전2권 60,000원'에 '택배비 본사부담' 배송!

◆ 도서출판 신지평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004-950578 김종현 / 전화: 02)338-4168 / 팩스: 02)6442-4168